



호르무즈 사실상 봉쇄... 오일 쇼크 공포

이란 "해협 통행 선박 불태울 것"
브렌트유 7%↑... 배럴당 77弗
한국 수입 원유 70% 수송 길목
봉쇄 장기화 땀 에너지 대기

한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유가 상승 및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 사례가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에브라힘 자바리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좌관은 이란 반관영 ISN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알려진 2일(현지 시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당 대비 6.28% 오른 배럴당 71.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6.68% 오른 77.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해역이다. 특히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69%가 중동산 원유인데 이 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며 에너지 문제가 현실화됐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다만 한국 정유사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피해를 본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던



한국 정유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선박 운송료와 보험료 등이 오르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안정됐던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다.

올해 초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원유 공급 과잉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56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며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 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문제가 생길 건 알았지만 실제로 봉쇄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구가 아닌 홍해 쪽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화하던 물량이 홍해로 몰리면서 항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미국과 남미 등 다른 국가를 통해 수입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원유 공급 문제가 생기는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 대응방안이 운영 중이며 대응에 협조하며 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도입선을 확보할 방안 또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pedaily.com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에, 코스닥은 55.08포인트(4.62%) 내린 1137.70에 장을 마감했다. 박미나 기자

중동 리스크에 휘청... 5800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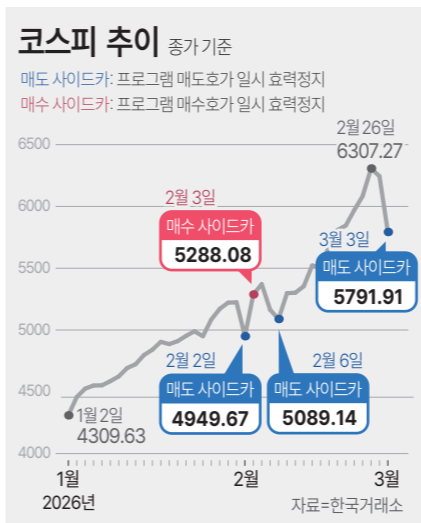
코스피 7.24% 폭락... 5791 마감
6000p 돌파 6일 만에 와르르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
대장주 삼성전자도 약세 전환

미국-이란 간 전쟁에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코스피는 3일 이전 거래일(27일) 대비 7.24% 하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전날 대비 452.22p 하락하며 '육천피' 타이틀을 반납했다.

코스피 200 선물을 급락하며 한국거래소는 낮 12시경 올해 4번째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은 오늘도 이어졌다. 기관 또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약 5조 1460억 원이었으나 개인이 동기간 5조 7975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는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하락했



다. 반면 방산, 에너지-원전, 2차전자-전력물자, 정유 관련 종목은 일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지수 또한 4.62% 하락한 1137.70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 반대되는 흐름이 보였다. 외국인이 5842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575억 원을 순매도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증시 타격을 이틀에 걸쳐 나눠 받았다.

닛케이지수는 2일 증가 기준 5만 8057.24로 27일 증가 5만 8850.27보다 약 1.35%, 793.03 하락했다. 3일은 이전의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가며 전일 대비 3.28% 하락한 5만 6155.47로 마감했다. 1901.77 떨어진 수치다. 2일과 3일 하락분을 합하면 2694.80로, 27일 증가 5만 8850.27 대비 4.58%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강보합 흐름을 유지했고 에너지주는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3일 오후 3시 47분 기준 1465원으로 27일(1440원) 대비 1.78% 상승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브리프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매도 압력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 11.0%, 전기·전자는 9.8%, 기계·장비는 8.3%, 증권은 7.6% 변동했다고 덧붙였다.

이선주 기자 sjlee@skypedaily.com

아파트 공시가 내주 발표 강남·한강 벨트 稅 부담 커진다

최근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3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마친 뒤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해도 '기준 시세' 자체가 작년 연초 고점에 가깝게 잡힌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핵심 변수는 '시차'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가격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1월까지 흐름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매 증가와 일부 지역 하락 전환이 나타났지만, 공시가격은 '조정 이전' 가격을 토대로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시세가 내려가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고가주택이나 한강벨트 핵심 단지에선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에 걸리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유세 부담도 빠르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산출 보유세는 약 1850만 원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납부세의 150%)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1200만 원의 150%인 1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600만 원 가량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시세는 10% 내렸는데 보유세는 50% 가까이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고가 주택이나 한강벨트 핵심 단지에서는 세부담 상한 적용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jwang@skypedaily.com

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첫 '부의 지도' 서비스

부자의 성(城)

서초 강남 용산 SKY!!!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

놓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